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NEWSLETTER

2012 Vol.3

발행일 2012.09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발행인** 최종열

홈페이지 http://biz.pusan.ac.kr 전화 051.510.1659~60,1678 팩스 051.581.8180

 편집장 김경영
 편집원 정정민, 문송이, 유송이

 편집디자인 looccompany
 인쇄 (주)우진문화사



CONTENTS

인사말

_최종열 경영대학 학장

-

_이용흠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주요 뉴스 / 교수 동정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 국제 관련 / 동문회 / MBA / AMP

명사 칼럼

기업도시 부산의 명성 회복, 우리 몫이다 _조성제

교수 칼럼

뉴스 단신

나만의 멘토를 찾자 **_김진욱** 스마트하기에 얻을 수 없는 것들 **_홍태호**

동문 칼럼

미래인재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_박종익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_이병찬 부산대 경영대학원 기고문 _구자현 선배님과의 만남 _최홍식

학생 칼럼

교환학생 리뷰 _Esther giselle Lee 삼성물산 취업기 _장동원 국가 연계 봉사 프로그램 캠프힐 해외봉사 체험기 _이정민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_전상우 운(運)이 좋은 사람이 되자 _이헌동

행사 참가기

현대중공업 견학 보고서 **_박귀해** 농촌학생연대활동 **_김해누리** 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2 PNU BIZ GLOBAL CHALLENGE **_윤선영** 문탠로드에서의 소통 **_강민화**

경영대학 발전기금

편집후기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경영대학의 비약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최종열 경영대학 학장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그 기세를 잃고 높은 가을 하늘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

니다. 창의력과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글로벌 경영인재 양성을 위해 62년 역사의 상과대학에서 경영대학으로 분리 독립한지도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효원 경영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학기에 국내 경영교육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제는 국제경영교육인증(AACSB)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교육 국제화를 위해 미국 Rutgers 대학과 공동학위제 및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큐슈대학교와는 경영대학원 프로그램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외 파견 학부생들과 CPA 준비생들에게 경영대학에서 별도의 장학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연구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각 전공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집에 게재하는 우수논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우수논문 인센티브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영대학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부학장과 기획학생 부학장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행정조직의 개편도 완료하 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모든 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자기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경영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동문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편협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동참할 때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경영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호를 맞이한 「효원경영」도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편집진 등 소수의 노력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의 참여와 호응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영대학의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효원 경영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경영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용음 건축공학 68 ㈜일신설계종합건축사 회상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경영대학 동문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늦게나마 경영대학의 소식지 「효원경영」의 제3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효원경영」제1호와 2호를 통해 경영대학의 소식을 쏠쏠하게 전해들을 수 있어 많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모교의 소식과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옛날 학창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명성을 선두에서 빛내고 있는 경영대학이 62년 전통의 상과대학에서 분리 독립한 지만 2년이 되었습니다. 경영대학은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대학으로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더욱 중요도가 커지고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경영대학의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관리를 통해, 모교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는 경영대학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경영대학 소식지인 「효원경영」은 사회 곳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문들은 물론 재학생과 교수님들이 소통하는 귀중한 포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경영대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의 관심과 배려는 경영대학을 넘어 모교 전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62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대학교의 경영대학이 많은 변화와 혁신을 도모한 것을 목격해왔던 만큼 앞으로 경영대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18만 명의 동문들도 자랑스러운 경영대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

SINGENS BRIEF

뉴스 단신

주요 뉴스 / 교수 동정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국제 관련 / 동문회 / MBA / AMP



NEWS BRIEF

MAIN NEWS

주요 뉴스

국내경영교육인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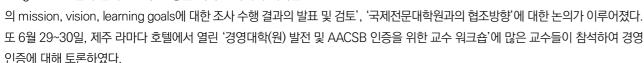
6월 8일 ~ 6월 20일, 경영대학의 경영인증 현장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내경영교육인증 취득의 마지막 관문인 이번 현장실사를 위해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파견된 계명대 최만기 교수 (실사 위원장), 숙명여대 김주헌 교수(경영교육인증원 부원장), 서울시립대학 이성호 교수가 참석하여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한편, 경영대학에서는 최종열 학장, 이장우 부학장, 경영인증 추진 위원장 서문식 교수와 경영인증 사무국장 홍태호 교수를 비롯한 집필위원 김진우 교수 및 운영위원 교수들의 협조가 이루어졌다.

8월 16일,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심의결과 부산대학교 경영교육인증 확정서를 전달받았다. 인증기간은 2012년 8월 16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이며 인증 후 2년 이내에 약속이행 사항을 포함한 진행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포함된 교육개선평가보고서(QIR)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경영교육인증 순조롭게 진행

경영대학의 국제경영교육인증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 지고 있다. 4월 29일~5월 1일, 최종열 학장과 AACSB 인 증추진위원장 최종서 교수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ICAM(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nnual Meeting)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경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본 연차 총회에서는 2012년에 발표 예정인 새로운 AACSB 인증 기준이 제시되었다.

5월 21일에는 AACSB ICAM 참가 보고 및 Mento 수락 논 의를 위한 AACSB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San Diego ICAM 참가 결과 보고', '인증을 획득한 국내외 대학들



7월 30일~8월 2일에는 경영인증사무국 담당 김은희 조교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Business Accreditation Seminar와 Assurance of Learning Seminar'에 참석하여, 각국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경영인증 및 AOL 기준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익 ㈜삼익 대표이사 자랑스런 부산대인 선정



5월 10일, 62학번 박종익 (주)삼익 대표이사가 자랑스런 부산 대인 8인에 선정되었다. 부산대는 개교 66주년을 맞아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관계, 사회·경제계, 법조계, 의료계, 여성계 등 각계 동문 8명을 제9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으로 선정했다. 박종익 대표이사는 (주)삼익을 설립하여 안정된 원자재 공급으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민간차원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평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시상식은 10.16기념관에서 개최된 개교 66주년 기념식장에서열렸으며, 이날 행사는 개교 기념식 및 PNU Vision 2030 선 포식에 겸해 제9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신임교수 및 전임대우강사 공채

경영대학(원) 발전 및 AACSB인증을 위한 교수 워크숍

2012년도 부산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통해 2학기 경영 대학 전임교수 신규채용과 전임대우강사 채용 일정이 완료되었 다. 전임교수 신규채용에는 마케팅 분야에 송태호 교수가 임용 되었다. 전임대우강사에는 마케팅 분야에 신영란 박사, 생산관 리 분야에 송윤희 박사가 채용되었다. 한편, 송태호 교수의 약 력은 다음과 같다.

송태호

학사: 한국과학기술원(전산학과) 공학사 석사: 고려대학교(마케팅 전공) 경영학 석사 박사: 고려대학교(마케팅 전공) 경영학 박사

연구경력: UCLA 박사 후 연구원(CRM, Advertising 분야 연구)

경영대학 1인1계좌 운동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CPA 1인1계좌 갖기 운동에 삼 일회계법인에서 이병찬 대표를 비롯하여 30여명의 회계사가 동참하고 있다. 성도회계법인에서는 박철병, 장지환 대표가 각 각 500만원씩총 1000만원 출연하였고, 소속 회계사들도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에서 1인1계좌운동에 참여 중이다.

경영대학 발전기금

경영대학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조성하여 온 '경영학부 발전 기금'을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관리해왔다.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는 발전기금 조성 대상을 AMP 와 MBA 과정을 포함하여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지역유지까지 확대하여 기금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MP 61기(2012년 8월 수료) 46명은 총 4600만원을 출연하였다. MBA 42기(2012년 8월 졸업)는 조규성 원우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발전기금을 출연하였다.

LINC 사업 참여

경영대학이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LINC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경영대학이 LINC 사업에 참여하면서 최종열, 지성권, 조영복, 김종관 교수가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LINC 참여학과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 현장실습 및 심화 현장견학 참여, 현장 맞춤형기술 강좌 운영 등이 있다.

경영대학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



2012년 1월 업데이트되었던 동문 주소록의 두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현재 학부졸업생 명부와 경영대학원 AMP 명부의 업데이트를 완 료하였으며 총 건수는 2,500여 건에 달한다. 주

소는 직접통화, 문자 메시지, 메일 발송을 통한 회신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문주소록 업데이트는 대학과 동문 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경영대학 보직체재 및 행정조직 개편

7월 1일, 경영대학 보직체제 및 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되었다. 보직체제에서는 기존의 부학장과 학과장을 기획·학생부학장과 교무부학장으로 개편하는 '2인 부학장제' 도입을 통해 보다 원 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학과사무실을 재배 치하여 학과사무실과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행정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다. 경영대학은 이 같은 행정서비스 공간 집중화로 '원 스톱 업무처리체제'를 정립함과 동시에 대학과 학과의 이중화 된 행정업무 처리를 일원화 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경영대학 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 개설

경영대학에서는 지난 4월 10일에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계약과정으로 경영컨설팅학과(학위명: 경영학박사)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고, 산학협력단에서 심의결과 승인하였고 대학본부에 학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2013년도 1학기에 개설 예정이다. 모집 정원은 20명이며, 모집 예정시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일정에 따른다. 금년의경우 12월 초순으로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수업은 매학기 3과목씩 4개 학기(2년)에 걸쳐총 12과목(36학점)을 매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속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

 051.510.2566____김정교 교수

 051.510.3154___김명종교수

051.510.1362___김효정 (최고경영자과정)

전국 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협의회



6월 15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협의회가 회장교인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회원대학 27개교 중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대, 인천대, 전남대, 창원대, 충남대학교의 경영대학(원)장이 참석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영교육 내실화 및 경영교육인증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뉴스 단신





10

NEWS BRIEF

PROFESSOR NEWS

교수 동정



조영복 교수, 국민포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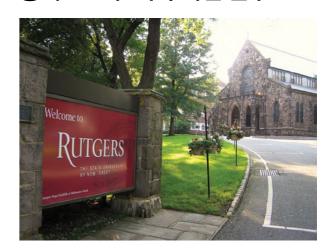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5주년을 맞아, 7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경영대학 조영복 교수가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분야의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영복 교수는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6년에, 전국 최초로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을 설립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힘써 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6월 14일~15일, BEXCO에서 개최된 2012년 '한국경영정보 학회와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경영대학 김종기 교수와 박사과정 김상희(경영정보, 11) 씨가 한국정보 시스템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김종기 교수와 김상희 씨는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LBS)의 정보제공의도에서 프라이 버시 계산 기반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해 2012 년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우수논문상에 선정되었다.

홍태호 교수 미국 파견 근무



경영대학의 홍태호 교수가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떠났다. 홍 태호 교수는 2012년 7월 10일~ 2013년 7월 9일, 1년 간 미 국 Rutgers University, Center of Operation Research에 서 '기상 뉴스의 이벤트 기반에 Support Vector Regression 을 이용한 기후변화 파생상품의 예측'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수 행한다.

이장우 교수 BB(Brain Busan) 21 매우 우수 사업단 선정



4단계 BB21 사업 2차 연도 평가에서 경영대학 이장우 교수가 '매우 우수'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이장우교수는 '부산 금융 중심지 선진화를 위한 금융학술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금융·선물 분야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산학연계 및 학술활동 우

수, 지역사회 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장우 교수 사업단은 8개 대학 22개 사업단 중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우 우수' 사업단에 포함되었다.

경영대학 부학장 임면

2012년 2학기 경영대학 부학장 임면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경영대학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무부학장(학과장) 김종기 교수와 기획·학생부학장 이장우 교수의 보직 임기가 만료되었다. 두 교수의 노고에 많은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9월 1일부터 김종관 교수와 김명종 교수가 교무부학장(학과장)과 기획·학생부학장을 맡아 수고 중이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뉴스 단신





NEWS BRIEF

SCHOLARSHIP

장학

CPA 1차 합격자 장학금 수여



경영대학이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등으로 조성된 발전 기금을 활용하여 공인회계사 (CPA) 1차 시험에 합격한 학 생들에게 일인당 50만원의 장 학금을 지급했다. 6월 22일, 상 학관 208호에서 2월에 시행된 CPA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영대 학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한 장 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본 장학 금은 2차 시험 준비를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

상대동문회 장학금



3월 8일, 온천장에 있는 '해림갈비'에서 상대동문회 회원, 교수와 학생 등 총 35명이 참석하여 2012년도 제1차 확대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012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에 대한 보고 및 승인이 있었다. 또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에 재학 중인 6명의 우수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 수여가 진행되었다.

83학번 동기회 장학금



경영학과 83학번 동기회에서는 학문적 역량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과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매학기 2~3명을 선발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정성윤(경영 11) 학생과 박서희(경영 09)학생이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두 학생은 "이 장학금을 저희들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의 미 있게 쓰는 것으로 선배님들께 보답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83학번 장학금은 경영대학 후배들이 더 나은 환 경에서 성실히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선배들의 뜻 깊 은 장학금으로, 계속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2012 해외 파견 교환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



7월 26일, 상학관 208호에서 12학년도 해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수여식에는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들 22명과 (1학기 7명, 2학기 15명) 경영대학 학장, 교무부학장, 기획·학생부학장 및 경영대학 교수들이 참석하였고, 학생들은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500(₩570,000)의 장학금을 받았다. 경영대학은 학생들의 교환학생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MP 55기 장학금



AMP 55기 원우회는 2012년 6월 부부합동강의를 개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영학과 노태석, 류호준, 반소정, 주유신, 회계학과 정욱환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 장학금은 김대철 대영유지(주) 대표이사, 조강래 서광철강산업(주) 대표이사, 이우식 유영산업 대표, 진병수 그로발스타로지스틱스(주) 대표이사, 김용오 케이시디아이(주) 대표이사 5명의 원우가 각각 100만원씩 출연하였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13



NEWS BRIEF

UNIVERSITY EVENT

대학 행사

Global Enterpreneurship 특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00분간 1학년을 대상으로 한 Global Enterpreneurship 특강이 진행되었다.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특강은 신입생들이 사회 각계각층 명사들의 강연을 듣고 좀 더넓은 견문을 가지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특강에는 심재승 KRX 한국파생상품 R&D센터연구원, 유상희 동의대 교수, 조용학 대선주조 사장, 이제훈 한국선재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강병중 넥센 회장, 이영활 부산시 부시장, 이용흠 상대동문회장과 같은 많은 명사와 경영대학 이교봉 교수, 장활식 교수가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강연을 들려주었다.

경상전



3월 31일,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의 친선체육대회인 '경상 전'이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경영대학이 출 범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경상전은 두 대학의 학생들이 서로 교 류하며 추억을 쌓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경상전의 주요 일정 으로는 축구, 농구, 남녀계주, 피구가 있었고 행사 마지막에는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장기자랑과 시상식을 진행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축구에서는 경제통상대학이 승리하였지만, 농구, 남녀 계주, 피구에서 경영대학이 연달아 승리하며 최종 점수 3대 1 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두 단대의 학생들은 승패를 떠 나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수고의 인사를 나누고, 출범식에서는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기면서 경상전의 진정한 의미를 더해주 었다. 경영대 학생회장은 '2회, 3회 계속해서 개최될 경상전이 앞으로도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친목 도모를 위한 즐거운 축제가 될 것' 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경영대학 체육대회

5월 13일,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학생들의 힘찬 응원 속에 경영대학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경기에는 줄다리기, 닭 싸움, 축구, 짝 피구, 미션달리기, 계주와 같이 다양한 종목이 있어 많은 학생의 참여를 얻을 수 있었다. 중간고사를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험기간의 스트레스를 날리려는 듯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학교 측에서 제공한 편육과 막걸리를 먹고 마시며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반나절 정도의 행사였지만 학생들이 땀흘리며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CFA 설명회



5월 2일, 경영대학에서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CFA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재무관리전공 박사과정인 CFA Charter Holder 임경주 강사의 진행으로 이뤄진 설명회는 CFA의 업무, 자격증 취득 과정, 실무경험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진로 선택에 고민하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진로의 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PNU 경영학과 오픈 캠퍼스



5월 18일과 7월 7일, 상학관에서 경영대학 이장우 기획·학생부학장과 김종기 교무부학장의 진행 아래 두 차례에 걸친 'PNU 경영학과 오픈 캠퍼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오픈 캠퍼스는 부산대학교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알림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대한 기회와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운영되어, 고3 재학생 및학부모와 학교 측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픈 캠퍼스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14

우리 지금 만나 타과와의 교류 - 사회학과

5월 22일, 상학관 B동 109호에서 '우리 지금 만나'라는 이름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영대생과 타대생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친목과 인맥을 쌓기 위해 진행되는 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 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 경영학과와 사회학과의 만남에서는 약 50~60명의 학우가 모였으며, 소개를 통해 서로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팀 게임으로 친목을 도모하였다. 강의실에서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모두 함께 뒤풀이에 참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실 동아리 활동이 아니면 다른 학과 학우들을 알기가 어려운데, 타과와의 교류 행사를 통해 타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지금 만나'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경영 11, 윤병욱)

SAP 특강

6월 7일,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전공 관련 학생들과 2012 Run Better 경진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SAP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에서는 SAP KOREA의 현덕훈 전무가 초청되어 'Market 3.0시대의 스마트 IT 기반 경영혁신'과 '2012 Run Better 경영혁신 제안 경진대회 안내'를 주제로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하였고, 강의 후에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SAP 분야에 경영대학 학생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로벌 챌린저



5월 25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경영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12 글로벌 챌린저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챌린저는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각국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대회에는 2인 1조로 구성된 13개 팀이 참여하였다.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각 팀에게는 500만 원과 400만 원의 해외탐방활동비가 지원되었으며, 이들은 해외 탐방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대상_WIN-WIN팀 (김종욱, 윤선영) - 한국형 동반 성장의 미래 우수상_BMX팀 (구민규, 최원석) - Crowd Funding의 국내 활성화 방안과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현대중공업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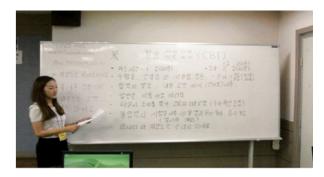
6월 8일, 경영대학 산업현장 견학 행사의 일환으로 경영대학 이장우 부학장의 인솔 하에 교수와 학생 30여 명이 울산 현대 중 공업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현대중공업의 산업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수업시간에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세계최대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 현장 견학은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으며, 이번 견학을 토대로 학생들이 좀 더 실무에 근접한 경영학도의 시야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대학 농민 학생 연대활동



6월 26일~7월 3일, 7박 8일 동안 경영대학 학생들의 농민 학생 연대활동(농활)이 진행되었다. 총 26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농활의 장소는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마을'이었다. 학생들은 농활 동안 매일 새벽에 기상하여, 해가 질 때까지 농민들의일손을 거들면서 고된 농사일을 직접 체험하였다. 전지원(경영12) 학생은 "그동안 몰랐던 농민의 노고를 알 수 있던 기회였다. 힘들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과 교훈을 얻어 간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영학과 현장실습 참가



7월 23일~8월 20일, 4주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하 "LINC 사업단", 단장 안중환)이 주관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박찬비(경영 09), 김광연(경영 09), 김유나(경영 09) 학생이 참가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의 경험을 쌓으면서 맞춤형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소재)의 정책기획팀과 검정사업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이번 현장실습 경험을 경영학도의 전공지식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로 삼기 위하여한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국제포럼과 자격시험 주관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매진하였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학점 취득은 물론, 하반기에 LINC 사업단이 주관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 등에 우선 선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이같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금융권 취업을 위한 취업특강



7월 4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한 취업특강이 있었다. 이날 강단에 선 박성재(경영 05) 동문은 우리투자증권 최연소 합격자로, 현재 우리투자증권 PB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재 동문의 특강은 금융권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다양한 실무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방학 중임에도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모습에서 취업을 향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은 박성재 동문의 현실적인 강의 내용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간 선배에게 좋은 강연을 들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NEWS BRIEF

STUDENT AWARDS

학생 수상

제주 유나이티드 아이디어 공모전 동상 수상



'제주 유나이티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석사과정 윤거일(마케팅 10) 씨가 동상을 받았다. 시상식 및 워크숍은 2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제주 서귀포시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국내 프로축구 발전과 관심 유도를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주제로는 홈경기 스포테인먼트 전략 수립과 지역밀착 마케팅 방안, 팬 만족도 제고 및 열정적인 응원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 방안, 그리고 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윤거일 씨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스포테인먼트 시설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장을 찾은 축구 애호가들을 위한 서비스 및 관광 명소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Double CP팀, MVNO 아이디어 대상 수상



3월 6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진행된 부산대 박재용(경영 06), 최병진(경영 06), 박보미(경영 09) 학생과 최창현(스포츠 과학부 06) 학생으로 구성된 'Double CP'팀이 SKT 후원으로 두 달간 진행된 'MVNO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상을 차지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뜻한다. 수상팀은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의 수가 매년 30%가량 급증해 연 10만 명을 넘었지만, 이들이 이용 가능한 이동통신 서비스는 한정돼 있다는 점에 착안,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과 MVNO 서비스를 연계한 상품을 제안했다.

국제 관련



NEWS BRIEF

INTERNATIONAL

국제 관련

Rutgers University와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진행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경영대학이 미국 New Jergey 주립대학인 Rutgers University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10월 26일 Rutgers University 관계자가 경영대학을 방문하였고 2012년 5월에 협정서가 체결되었으며, 현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Rutgers University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지식 소양을 갖추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대학 페이스북 커뮤니티 멤버 1,000명 돌파

2011년 2학기 개설되었던 경영대학의 페이스북 커뮤니티 멤버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학생, 교수, 그리고 동문이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이루어왔다. 학생들은 페이스 북의 페이지 팔로우를 통해 학과내의 장학, 학적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과행사 소식을 서로 공유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경영대학의 페이스북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facebook.com/pnumanagement



18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19



NEWS BRIEF

ALUMNI ASSOCIATION

동문회

동문과 유학생의 상견나들이



4월 28일, 화창한 날씨를 벗삼아 경영대학 동문들과 재학생 그리고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상견나들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후 2시에 동백역 만남의 장소에서 모인 60여명의 참가자들은 반나절에 걸쳐 해운대 문텐로드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저녁을 함께했다. 동문 선배가 마련해준 자리를 통해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재학생과 유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효원 동문 가족 등반대회 개최



6월 3일, 개교 66주년 및 총동문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효원 동문 가족 등반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1,000여 명의 동문 및 가족 교직원이 참가하였으며, 모교 교정과 금정산 산행의 코스를 거쳐 최종 집결지인 산성마을 금정초등학교에서 모여 공식 행사를 시작하였다. 김기섭 총장과 이용흠 총동문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다 참가상 시상식 및 경품 추첨 등의 행사가 있었다. 학부 중에서는 공대와 상대 동문회가, 대학원에서는 MBA와 산업 CEO 동문회가 최다 참가상을 받았다.

상대동문회 봉사활동



6월 23일, 노포동에 있는 '남광 복지관'에서 상대동문회와 학생 30여 명이 모여 오염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봉사활동 행사가 진행되었다. 인근 공원과 산의 환경 정화 및 풀 뽑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참석한 상대동문회 일원 모두 봉사활동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NEWS BRIEF

MBA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집행부 워크숍

1월 14일, 부산대학교 상학관에서 MBA 원우회장 및 집행부원 40여 명이 모여 MBA의 앞으로 1년간 주요행사를 기획하고 논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2일 부산대학교 본관 대 강당에서 원장과 MBA 신입생 130여 명이 참석한 MBA 신 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 다. 현재 MBA에서는 학교생활 에 익숙하지 못한 신입생의 빠 른 적응을 위해 재학생과의 멘 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 생들의 원활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1 NEWSLETTER VOL.3

MBA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

3월 22일, 롯데호텔 아트홀에서 최종열 경영대학원 원장과 손인 총동창회 회장을 포함한 신입생 및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입생 환영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함과 동시에 MBA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스승의 날 골프대회

5월 11일, 동부산 컨트리 클럽에서 MBA 학생들이 주최한 스 승의 날 골프대회가 진행되었다. 교수와 재학생들이 골프대회 를 통해 사제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MBA 전체학년 워크숍

4월 21일, 해운대 그랜트 호텔에서 MBA 전체학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여 1박 2일 동안 교수 특강과 와인 특강을 들었으며, 외부명사를 초청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학년을 아우르는 워크숍은 재학생 간의 인적네트워크 강화와 단합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5월 20일, 부산대학교 경암 체육관에서 MBA 한마음 가족체육 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원장과 교수뿐 아니라 재학생과 재 학생 가족이 참석하여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서로 가족 간의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자리였다.

하계휴양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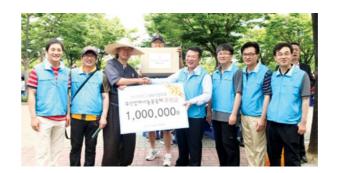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 부산 일광해수욕장에서 MBA 하계휴양소 운영이 이루어졌다. 하계휴양소 운영을 통해 교수 및 재학생, 재학생 가족이 참석하여 가족 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행사 이후에 해수욕장 정화활동을 펼쳐 학교 위상강화에 일조하기도 하였다.

MBA 사랑의 밥차



6월 23일, 부산대학교 MBA 원우회의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활동 행사가 진행되었다. 부산 밥퍼 나눔 공동체와 MBA 원우회 가족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식사 나눔뿐만 아니라 일백만원에 달하는 부산밥퍼 나눔 공동체 후원금 전달도 함께 진행되었다.



201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



8월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1학년도 후기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식장을 꽉 채운 수료생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먼저 42기 MBA의 지난워크숍,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의 여러 행사들과 졸업생들의 사진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었다. 수료생들은 학위기와 각종 상패를 수여 받고 축사를 주고받았으며 식이 끝난 후에는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부산대학교 부총장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임원이 초청인사로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22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3

NEWS BRIEF

NEWS BRIEF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6월 13일, 영도구 청학동 수변공원에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61기와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인근 지역의 독거노인과 노숙인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식사 제공 외에도 AMP 61기 기부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을 베풀기도 하였다. 행사 후 설거지 등의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뒤, 다음 62기의 봉사활동을 기약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AMP 61기 특강



6월 14일, 누리 마루 APEC 하우스에서 부산대학교 AMP 61 기 특강이 있었다. 국내 저명인사 특강으로 진행되는 부부 합동 두 번째 강의에서는 김세연 국회의원의 초청 특강이 있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강의는 두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넷 강의 3개월 학습이용권 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61기 원우회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고자 15만 원 상당의 '인터넷 강의 3개월 학습 이용권'을 증정하였다. 이용권 증정에 관한 공지는 경영대학 공식 SNS인 Facebook을 통해 이루어졌다. 행정실을 방문하여 선착순으로 이용권을 받은 학생들은 www. winglish.com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토익, 토플, 영어회화및 중국어와 일본어 등의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혜택을 받게 된 학생들은 "외국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과비용을 덜 수 있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MP 수료식

8월 21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제 61기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에는 원우회장 문헌재 외 45명이 참여하였고, 수료자 전원이 공로동문패를 수여받은 후 감사패, 우정상, 공로패, 표창패, 논문우수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61기 AMP 수료생들은 1인당 1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하여 총 4600만원의 발전기금이 모였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기섭 총장이 참석하여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이관길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과 오종수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4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5

COLUMN

칼럼

COL PROFESSORS UMNIS

STUDENTS

칼럼

명사칼럼 / 교수칼럼 / 동문칼럼 / 학생칼럼



부산!

묘하고도, 매력적인 도시다.

자부심을 갖다가도 실망하고, 그러다가 또 매력에 빠져들고...

자연인 조성제에게는 꿈과 도전을 주고, 땀을 쏟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곳이다. 하지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제에게는, 솔직히 안타까운 도시다. 그래서 더 맹렬한 기업가 정신과 열정을, 지금도 가지게 해주는 도시, 부산이다.

2011년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중 72%인 720여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전체 매출액도 83%나 된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38개 기업 뿐이다. 매출액은? 1.3%에 불과하다. 양적 질적으로 너무나 영세하다. 100대 기업으로 좁혀지면 보다 심각하다. 부산기업은 녹산 공단에 위치한 르노삼성자동차 뿐이다.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족하고 업종별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IT기업 등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인력의 역외 유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우울한 경제지표만 보면 우리 부산은 '기업도시' 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지 않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산이야말로 한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던 중심 도시였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소비재 수출 산업이었다.

이 산업에 가장 적합한 곳은 바로 전쟁의 피해가 없었던 부산이었다. 더욱이 대륙의 관문이라는 천혜의 입지 조건과 주변 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노동력도 힘을 보탰다. 합판,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 적 경공업의 가파른 성장세에 수출우선 정책도 더해져 '기업도시 부산'의 위상이 당당했다. 1966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9%. 반면 부산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지역총생산액의 약 10%. 제조업생산액의 13%를 차지했다.

부산이야말로 대한민국 공업화의 선도요, 주역이요, 고도성장의 발판이었다. 오죽했으면 '부산의 산업화가 곧 한국의 산업화'라고 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은 시대 흐름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 변혁을 예견하지 못했고, 따라잡지도 못했다.

1973년부터 시행된 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 산업정책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전환됐다. 산업 구조 및 경쟁력의 변화가 시작됐으나, 부산은 그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다. 반면 울산 창원 마산 등 인접 지역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서둘렀다. 한국 경제의 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이 점차 색바래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80년대가 되면서 정부는 부산을 '성장관리도시'로 묶어 버린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빠르게 진행되던 제조업 구조의 고도화 추세에도 편승하지 못했다. 그나마 서비스 산업이 그 공백을 메우기는 했으나, 이미 제조업 기반이 탄력을 잃어버린 탓에 저생산성과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부산을 등지고 떠났다.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 동명목재, 태 창목재, 국제그룹, 동남은행 등이 무너지면서 암흑은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90년대 말 경기침체와 IMF 위기 이후 부산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갔다. 경공업 중심에서 조선과 조선기자재·자동차부품 소재·철강 등으로 산업구조 재편에 성공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한 꾸준한 노력은 부산신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2002 아시안 게임, APEC 정상회담 등 부산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는 도로·교통망 정비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이끌어 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는 '기업도시 부산' 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낼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그 견인차의 선봉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기업인과 경영인의 사회적 책무라고 본다. 우리 모두가 부산경제의 새 시대를 이끌 핵심 위치에 서야만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미덕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강태공은 '고기는 미끼로 낚고, 인재는 녹(祿)으로 부른다'했다. 어렵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 상생·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다.

이같은 우리의 노력과 함께 외부적 기반 마련도 절실하다.

먼저 친기업(Business-Friendly)행정이 급선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관이 앞장서서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몽고 속담에 '한 손으로는 단추를 꿸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제반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의 신항만과 신공항, 북항재개발 및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기업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주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29 NEWSLETTER VOL.3

30

민들에 대한 편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부산의 센텀시티는 주거 환경은 탁월하지만 기업 입지조건으로는 부족하다. 반대로 강서구는 교육, 문화,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 이 둘을 이어주는 광역 망이 연결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산업용지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의 개발제한구역은 공장 증설과 확장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들의 역외 이전과 인력 유출의 한 원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992년 부산의 최초 국가산업단지인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착공됐다. 2008년에는 강서 지역 약 3,300만㎡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또민영산업단지인 '명례산업단지'를 기장군에 조성하며 또 한번 기업 부흥을 꾀하고 있다. 산업용지 부족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만 타지 기업들의 부산 이전이 가능해진다.

네 번째로 부산 내부의 산업구조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타 지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받쳐주는 안정적인 형태다. 반면 부산은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이 확장되어 왔다.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어렵고, 외부 경제에 쉽게 충격을 받는 약점을 안고 있다. 다행히 2000년대 이후 조선·조선기자재 산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면서 부산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갈 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야는 바로 문화·관광산업이다.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야기가 가득한 도시의 역사를 적극 활용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700리에 이르는 갈맷길이 있고, 부산의 음식과 맛집은 전국에서 손꼽힌다. 머지않아 문화·관광산업은 미래의 부산을 이끌 중추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기업도시 부산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끝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은 수도권의 역할과는 다른 차별화된 기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처럼, 수도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도쿄와 달리 오사카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전통문화·예술의 도시로 제2의 수도 역할을 한다.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 하고 부산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차별화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이어 신항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이 이어지면 부산은 유라시아의 관문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항만도시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다.

과거 기업도시 부산이 외부 환경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 앞으로 다가 올 기업도시 부산은 정부와 자치 단체,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몫이다. 어려움을 딛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감동은 배가 된다. 현재의 모습에 힘들어 하고 있기 보다는 이를 극복해나가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묘한 도시, 매력적인 부산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그려본다.

나만의 **멘토를 찾자**



<mark>김진욱</mark> 경영대학 교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자신만의 멘토 또는 Role Model로 삼고 끊임없는 영감적 교류를 했으리라 추측되는 점이다.

우선 위대한 혁신가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자. 스티브 잡스가 가장 존경했다는 인물 중의 하나는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다. 튜링은 동성애를 범죄시했던 당시 영국법에 의해 화학적 거세를 당한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오늘날의 컴퓨터가 튜링이 만든 한 기계 장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12년 런던에서 태어난 튜링은 캠브릿지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 정부에서 일하면서 독일 해군의 U-보트 통신암호를 해독해내 2차 대전의 연합군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한다. 그 후 캠브릿지 대학 수학과 교수로 있을 때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계산기 '콜로서스'를 만들었고, 음성을 암호화하는 기술도 개발했었다. 특히 인간의 논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알고리즘의 개념을 만들어 인공지능의 세계를 열었고, 기계에 지능을 부여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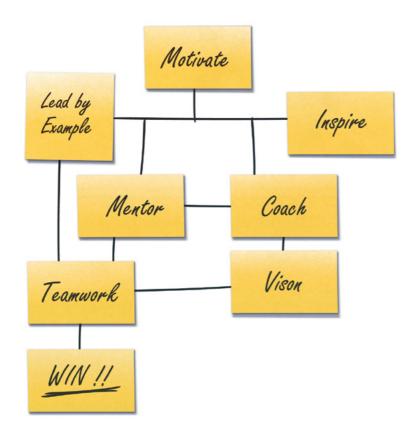
애플사의 로고가 한입 베어 먹은 사과(이른바 파인 애플)인 이유는 튜링이 자살할 때 독을 발라먹었던 그 사과를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란 추측이 많다. 더욱이 그때 먹은 사과의 품종이 맥킨토시였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튜링과 잡스는 기계에 인간의 지능과 사고를 담으려는 꿈을 공유했으며, 스티브 잡스는 그런 엘런 튜링으로부터 영감을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쩌면 잡스가 튜링으로부터 받은 영감적 교류의 산물일지 모른다.

다음으로,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은 인물은 터키의 국부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이라 한다. 케말은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다르다넬스해협의 갈리폴리 전투에서 막강한 영국 해군을 패퇴시킨 전쟁영웅이며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패전 후 연합국의 내정개입에 맞서 지금의 수도 앙카라에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려는 그리스군의 침략을 분쇄하여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을 수립한 인물이다.

케말이 터키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는 혁명적이었다. 거대한 이슬람 종주국이었던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탈피를 꾀한 것이다. 이슬람 국교는 폐지되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 술탄을 하야시키고. 국가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민법을 제정하여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일부일처제를

도입하였으며, 남녀합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슬람 전통 복장을 폐지하고 아랍문자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문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과정의 반발을 제어하기 위해 왕실과 성직자의 다수를 숙청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일당 독재를 시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이며 민족주의자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근대화를 강력히 추구했다는 점에서 무스타파 케말과 공통점이 많다. 이런 공통점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새마을 운동의 실질적 내용에 있다. 새마을 운동이 얼핏 농촌의 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한 운동으로 비치지만 근본은 국민 의식의 개혁이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산속에 있던 신당 굿당을 철폐하고 무당을 구속하고 성황당이나 심지어 미신의 대상이 되는 마을의 정자나무까지도 없앴다. 민족 문화 저변에 깔렸던 미신을 범죄차원에서 다루고 이를 철폐하려 했다. 나아가 농한기 도박 등 불건전한 여가문화의 개선과 허례허식 등 근대 사회의 구축에 걸맞지 않은 전통가정의례까지도 개혁하려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슬람 국교를 폐지하면서까지 조국을 근대화하려 했던 무스타파 케말로 부터 영감을 얻었으리라 추론되는 대목이다.



흔히들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인생의 진로나 좌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멘토가 굳이 살아 있는 멘토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누구나 마음속에 위대한 롤 모델을 정하고, 그래서 위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창창한 세월이 남았는데 적어도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롤 모델 하나씩을 갖도록 해보자.

스마트하기에 **얻을 수 없는 것들**



홍태호 경영대하 교수

한 때 세계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컴퓨터인지 세탁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에 연관된 직업을 갖고 있고 평소 세탁기의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역시 컴퓨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제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손안의 작은 컴퓨터가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동이 자유롭고 날렵한 몸매를 드러내던 것만으로도 쇼의 주인공이 되었던 랩톱 컴퓨터를 밀어내고 이제는 스마트 폰이 우리의 일상 속 깊은 곳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스티븐잡스가최적 크기의 스마트 폰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처럼 스마트 폰은 나의 한손에 꼭 잡혀서 하루종일 수도 없이 나와 눈을 마주친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스마트 폰은, 나와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이미 내 가족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또 스마트 폰은 이메일,연락처, 일정, 각종 예매, 뉴스 시청, 음악 감상, 전자 책, 메신저 등 그 기능을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나와함께한 기간은 겨우 3년이지만 이제는 스마트 폰 없이는 아무 일도할 수 없게 될 지경이다.

만약에 내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다.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배웠던 조선시대의 수필 중, 바늘이 부러지자 이를 애도하는 내용인 '조침문'을 떠올려보라. 여기서 바늘을 스마트 폰으로 대체하면 그 내용이 구구절절 공감이 갈 듯도 하다. 우리에게 스마트 폰이 없다면 어떨까.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최근의 스마트 폰과 같은 iPhone이 최초로 출시된 것이 5년 전인 2007년이고, 대중화된 3G 모델이 나온 것은 2008년부터이다. 불과 4~5년 사이에 이렇게 스마트 폰에 길들여진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에 놀람과 동시에 또 한 번 스티브잡스의 위대함에 감탄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스마트 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지난 15년간 이상을 매년 수첩에 약속을 메모하고, 지인들의 연락처를 적고, 그 해에 하고 싶은 목표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스스로를 평가해보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수첩을 보면서 그 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아련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빙그레 웃기도 했었다. 일단 입력하고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는 스마트 폰에 비해, 수첩은 한번 쓰면 쉽게 고칠 수 없어서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된 글을 적게 된다. 결국 폰은 스마트해진 대신 사용자는 점점 스마트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스마트 폰에서도 연락처를 관리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 스마트 폰으로 지난 기록을 되돌려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 책상 서랍속의 10년 전 수첩은 지금도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지만, 스마트 폰에서는 지난 일정을 보기 위해 날짜를 돌리다가 귀찮아서 멈춘다. 과연 스마트 폰에 자신의 10년 전 일정을 동기화할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스마트 폰의 보관기능은 그리 장기간 믿을 게 못 된다. 지인들의 연락처의 경우에도 수첩을 통 해서는 변천사를 알 수 있지만 스마트 폰은 항상 새 것만 알려준다. 수첩은 Data warehouse에서의 시계열성(time variant)속성을 갖고 있지만, 스마트 폰은 없는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1등만 기억하 는 세상…"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스마트 폰은 동기화라는 미명하에 지난 기록은 모두 덮어버리고 가 장 최근의 기록만 유지한다. 이렇게 수첩이 스마트 폰보다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니 재미있 기도 하다. 나의 수첩 중에는 끈적거리는 일회용 커피에 목욕을 한 녀석도 있고, 반쯤 눌려서 접힌 녀 석도 있다. 애플과 삼성이 아직 해내지 못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웃음도 난다. 또 내가 10년 전에 사용했던 수첩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교체한 스마트 폰을 다시 켜보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쥐꼬리만 한 보상금에 팔아버리기 십상이다. 스티브 잡스의 2007년 스탠포 드 졸업식에서의 연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인 "Stay hungry, Stay foolish"를 떠올렸을 때, 저 문구에 맞는 도구는 아마도 스마트 폰보단 수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24 시간 Working Office가 되어준 스마트 폰이 이제는 고마운 존재에서 얄미운 존재로 느껴진다. 그 동안 멀리했던 수첩을 다시 가까이 하기로 하면서, 10년 후에도 수첩과 스마트 폰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아야겠다는 내용을 수첩에 적었다. 혹 필자가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수첩을 잘 쓰고 있을지 궁금 하신 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스마트 폰에 입력해보길 바란다. 스마트 폰의 일정관리가 10년이 지나 도 유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세계 최대의 도시인 뉴욕 지하철에 없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화장실이고 나머지 하나는 휴대폰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화가 불가능해 상대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거의 없다보니, 뉴욕의 지하철 풍경에는 여타 다른 도시보다 훨씬 인간적인 느낌이 있다. 뉴욕의 지하철 안, 나도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집중해본다. 얼굴을 마주한 사람과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즐거움은 결코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로 대체될 수 없음을 새삼 깨닫는다. 분명히 스마트 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생활 자체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스마트하기에 우리가 놓쳐 버리거나 얻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미래 인재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박종익 경영 62 ㈜삼익 대표이사

지금의 세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무한 경쟁 글로벌 시대이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예측한 내용이 때로는 엄청나게 빗나가고 있다. 어렵더라도 앞으로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예측하여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연구는, 단순히 미래 어떠한 일이일어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격변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고와 확고한 신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환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차 속에서 영속적으로 급변하는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21세기형 전략인 글로벌화에서 퇴보하고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변화로서 상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새롭고 발전된 사고로 진화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 혁신, 경쟁 우위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경쟁 레이스를 선점하는 혁신, 기획과 미래 위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민첩성이 있어야 하고,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최초로 창조하는 창의력을 발굴하는 혁신 레이스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글로벌 전략이다. 그래서 현재의 착시현상을 경계하고, 성과를 참고하여 미래를 통찰하고 이끌어 갈 지혜와 순발력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지도력을 보유해야하며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역량을 극대화 하기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Speed&Smart의 조화를 형성해 가는 21세기형 초경쟁력의 특징을 나타내는 미래 인재의 조건이다.

현재의 성과와 미래 가치와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무경계성의 어떠한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선택 및 집중을 통한 각성을 해야 하며 아무리 각성을 한다 해도 그 각성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없 다면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다.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과 지각을 가지고 자기의 성향을 분석 자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상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 등 평범한 지식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불확실 성의 시대에 필요한 것을 광범위한 정보와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리더쉽을 갖고, 기획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Plan-Do-See하면서 시스템화 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다. '만고불변은 없다'는 말과 같이 모든 사회는 생명력을 가진 생물과 같아서 용도에 따라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3.5 NEWSLETTER VOL.3

가치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쉽을 통한 또다른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리더쉽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자기개발서 내용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의 습관은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이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의존적 단계에서 출발해서 독립된 단계로 키우고 재충전 습관까지 갖추게 하는 성공 방정식을 제시한 단계적 처세술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는 개인실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개인비전의 설정을 중요시하고, 구체적으로 끈기와 지속적인노력,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가치가 적음으로, 지식의 활용법을 연구하는 비법을 배워야 한다. 즉 창조적 인재양성을 가능케 만드는 사회적 교육과 자신의 능력개발로 세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사고를 가져야 하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집중할수 있는 몰입도를 제고시켜 개선과 혁신을 주도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Speed&Smart시대 창조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지된 만큼 정보화된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숙성된 데이터를 통해 현실화 시키는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미래가치와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시된 위의 방법들은, 경험을 통해서 꿈과 희망과 보람을 만들어 가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인재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역량과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전환점으로 하는 지식에서 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혜경영 시대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원리와 적용 능력이 작용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혜경영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의 핵심능력과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만의 독특한 문제해결 능력과 기회 포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는 학습능력과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의력과 발상능력이 있어야한다.

자기 관리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혁신을 부단하게 지속해야 한다.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야 하고,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일즈 능력을 길러야한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 중심의 세계에서 여타 외국어 구사능력과 세계여타 국가의 문화와 관습을 인지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또한, 지적 재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미래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꿈과 희망을 성공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하지 말고 극복하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지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도전한다면 잃어버린 것 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또한 험한 길을 즐겁게 걸어가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기술이 미래'라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는 것이 직업선택의 핵심역량이 되며, 미래인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미래에 무엇을 할지의 목표설정과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명확하고 확신에 찬 비젼으로 한계를 뛰어 넘을 수도 있지만, 꿈을 꾸고 키우는 것이학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한다. 미래 인생 방향 설정을 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으로 도전하는 신념을 가진다면 혼란에서 안정된 사고로 전환되면서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이며 절망에서 희망을 되찾는 사고의 진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성취와 도전의 기회가 많이 있다. 그때마다 첫단추를 끼우기가 두렵거든 '눈 딱감고 백번만 해보자'는 심정으로 출발하여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본다면, 마침내 작은 도전이 큰 성취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여갈 때 스펙이 한결 더 좋은 품격으로 변하지 않을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닥쳐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감능력과 포용능력과 비젼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소유하고 있는 책임감과 결단력 있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일에 대한 몰입도와 집중도를 제고하면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고 현재의 업무를 개선 혁신하여 역량의 성장속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 해야 할 일을 함께 이룰 꿈을 가지고 어제와 다른 변화된 오늘을 실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꿈과 생활의 균형 및 지혜와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힘의 작용에 의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자부심을 가진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가 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병찬 경영70 삼일회계법인 대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 동물들의 대이동에 빗대어 생겨난 속담이지만 요즘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합니다.

지금의 대학이 제가 다니던 시절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의 본질이 변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학은 우리가 도전하는 장이고, 노력하는 청춘의 든든한 터전인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빨리 가기 위한 스스로의 스펙 쌓기도 중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함께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노력하게 된다면 많은 후배들이 개성과 능력으로 뭉쳐진, 사회의 보편화된 잣대로 재고 싶지 않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으며 먼저 그 시간을 지내온 선배로서, 함께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기 : 친구 그리고 배우자

대학은 함께 가기 위한 누군가를 만나기에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청춘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자신들의 꿈을 구체화 시키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꿈의 구체화라는 것이 학문적 증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 교류를 통한 가치관의 정립과 수용 능력의 확장, 다양한분야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모두 꿈을 구체화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적인 교류를 통해 맺어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는 힘의 원동력이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친구만큼 인생의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함께 뛰는 사람들을 친구에 비유한다면 배우자는 나란히 뛰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꿈을 공유하는 배우자는 최고의 조력자이자 쉼터입니다.

이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들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교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왜 정작 현실에서는 단거리 선수처럼 뛰다 지쳐쓰러지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것과 같은 노력으로 상대방의 진심에 몰입한다면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와 배우자 모두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가기: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

현대의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이며 그만큼 대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대학을 학원처럼,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맹목적으로 재학하고 있다는 뉴스들은 저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후배 여러분, 꿈을 꾸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에 관하여 심사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취업을 위한 목표 없는 열정은 졸업과 함께 번개탄처럼 이내 그 불꽃이 사그러듭니다. 현재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가기 위한 개인적인 스펙쌓기 보다는 목표를 세우고 멀리 갈수 있는 전문자격과 어학능력을 취득하길 바랍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시장의 규모와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국내 대학 졸업생들의 가치를 글로벌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하여 전문자격과 어학능력을 갖추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노력한다면 지방대학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인재로, 더욱 멀리 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후배 여러분, 대학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큰 판으로 생각하고 꿈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곁들여 더욱 아름다운 삶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동문 선배로서 후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自己'를 고민하는 청춘이 **곧 좋은 인재입니다**



구자현 경영77 삼성전기 부사장

캠퍼스를 떠나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사회생활, 현재 삼성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기까지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8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것은 사람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배의 가르침과 후배의 뒷받침이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제 저도 선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당나라에서는 신언서판이라 해서 사람의 풍채와 용모(身), 언변(言), 글(書), 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判)을 최고의 관리가 될 사람으로 여겨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나라, 한 조직을 이끌어 갈 인재의 됨됨이는 말과 글과 판단력, 용모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 '좋은 인재, 나쁜 인재'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CEO 55인이 생각하는 좋은 인재는 첫째 인성, 둘째 직무수행 능력, 셋째 커뮤니케이션 능력, 넷째 정신과 패기, 마지막으로 인재양성 능력을 꼽았다고 합니다. 제가 몸담은 삼성도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학습과 창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사하는 대졸, 석사, 박사 출신의 신입사원들을 보면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엄친아, 엄친 딸'이 많습니다. 어학은 기본이고 신기할 정도의 높은 학점에, 봉사활동, 인턴 경험 등으로 입사지원서를 빼곡히 채울 뿐 아니라, 면접을 해 보면 달변에 용모까지도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인재'들 속에서 정말 '좋은' 인재를 찾아내는 건 바닷가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더 힘든 일이지요.

물론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어학도, 학점도, 다양한 경험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을 살리는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소크라테스), '지피지기, 백전백승'(손자병법),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노자) 등 옛 현인의 말씀 중 유독 '自己'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장점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이제는 장점을 키워나가야겠지요. 장점이란 재능(Talent), 지식(Knowledge), 기술(Skills)을 의미합니다. 재능은 타고난 선천적 능력이라 했고 지식은 학습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축적된 진리의 총합, 기술은 활동을 통한 업무 수행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내어 지식과 기술로 다져질 때 진정한 자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고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만약 재능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고정 상수라면 지식과 기술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술이



동문칼럼

란 업무 수행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니 만큼 우선, '지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저는 무 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업무현장에서,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제조 현장의 복잡한 품질 문제이든, 회계학상의 숫자 관련한 문제이든, 인사 부문의 언어적인 표현이든, 업무 수행은 바로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업무와 문제 해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 문제집 해설서에 적혀 있는 정답이 해결책인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단순히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oot Cause(근본 원인)를 찾아가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학적 접근, 다각도의 판단력은 바로 여러 분야의 독서를 통한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문, 경영 전공자라 할지라도 자연, 이공계의 이론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연, 이공계 역시도 철학, 사회, 경제학과 같은 인간 근본의 문제에 접근하고 고민하는 인문학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요즘 유행처럼 회자되는 '통섭형 인재', '소통 & 협업의 인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 지식은 자신의 자산이자 곧 회사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통섭형 인재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회나 과학의 변화는 그 속도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미래 사회를 누가 먼저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사회에서의 존재여부가 결정됩니다.미래를 바라보면 눈, 시장 로드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통섭형 인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미래 유망 사업이라고 하는 환경, 바이오, 에너지 사업 등은 단순히 과학과 기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수요도 만들어내야 하고 인간의 라이프스타일도 관찰해야 하며 시장간 연결되어 있는 Supply chain 등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재는 많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원하는 맞춤 인재는 이력서에 적힌 숫자의 총합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 받는 總量은 같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고민을 하면 나이 들어 고통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젊은 나이게 고민 없이 살면 늙어서 고통의양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이 시기의 고민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밝혀 주는 호롱불의 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배와의 만남 최홍식 선배님 인터뷰

성명 최홍식(崔弘植)

생년월일 1962. 8. 11

<u>학 력</u>

1987.02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1998.Univ. of Washington(Seattle, USA)

MBA 과정 졸업(MBA)

2007.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재무관리 전공) 수료2009.KAIST AIM 최고경영자과정 30기 수료

<u>근무 경력</u>

1987.04.증권거래소 입소 (조사부, 국제부, 비서실, 상장심사부 근무)1999.12.- 2005.01.상장공시부 공시제도팀장/공시실장/상장공시부장

2005.01.-2005.05. 증권선물거래소 조시국제부장

2005.05.-2007.01.동 국제부장2007.02.-2008.03.동 해외사업단장

2008.04.- 2011.04.동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2011.04- 2012.03동 코스닥시장본부 본보장보/상무2012.03 - 현재동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부이사장

<u>기타 경력</u>

1991.06.- 1992.08. 증시개방 대책반 참여

1998.02.- 1998.06. Univ. of Washington PACCAR Teaching Execellence

Award 선정위원회 위원

2005.01.- 2007.01. 세계증권거래소연맹(WFE) 실무위원회 위원

2008.- 2011.05한국예탁원 비상임이사2008.- 2011.05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이사

자격증 등

1998.05.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미국 공인회계사)



01 학창시절

_____선배님께서 학교를 다니시던 당시 학교 분위기와 선배님의 학창시절 생활은 어떠셨는지

80학번부터는 부마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1학기에는 중간고사 이후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어. 부산 전역이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기여서 데모로 인한 최루탄 가스가 거리에 넘쳐서 어수선하던 시기였지. 지금에 비하면 광안리에 광안대교도 없었고, 여러가지 문화시설도 부족했지만 낭만이 넘치던 시기였다고 생각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한 명이 발동을 걸면 단체로 우루루 내려가서 재밌게 놀았거든. 참 재밌었지.

당시의 시대에 겪었던 에피소드도 있어. 한번은 데모를 하다가 동아리 후배가 전경으로 학

생을 제지하러 온 선배님을 만난거야. 선배님은 후배를 알아보고는 "앞에 나와 있으면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라"며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걱정 어린 말로 보호하려고 하셨지. 비록 경찰과 데모 학생으로의 상황이었지만 선후배 간의 정이 두터웠었어.

_____활동하신 동아리나 클럽이 있다면 그 중 어떤 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내가 활동한 동아리는 루멘(LUMEN)이었어. 광원 또는 선구자의 의미였는데 다 같이 모여 서 봉사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동아리였지. 특히 이쁜 여학생들이 많았어 ㅎㅎ

02 ^{진로}

_____진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졸업 후 CPA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 몇 군데 그룹에 취업이 확정되어있었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평생의 방학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서울대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신림동에 서 고시원 생활을 한 달간 했지. 이후 다시 부 산으로 와서 생활하다가, 우연히 친구가 증권 거래소의 신입사원 모집 이야기를 하는 거야. 1980년대 후반, 증권회사의 실적이 치솟아 오 를 때였기에 좋은 전망을 듣고 증권 쪽에 생각 을 두고 있었거든. 또한 어떤 특정인을 위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 시장의 정보를 원하는 모든 관계자들(투자자, 기업 등)을 위해 일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 내 적성에 잘 맞았지. 그 래서 지원을 하게 된거야.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를 하기보다는 학생시절부터 놀 땐 놀더라 도 공부할 땐 꾸준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 과 정이 준비라고 볼 수 있지.

_____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가장 힘 들었던 고비의 순간이 있다면 언젠지, 그리고 어떻 게 이겨내셨는지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았어. 힘들 때도 있었 고, 좋았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항상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라도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장애 없이 끝까지 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지.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할 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산을 볼 때도 멀리서 보면 산의 전체 윤곽만 보일 뿐세세한 바위, 나무, 계곡 등은 볼 수없어. 자신이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막연히 생각하는 일의 시작 단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 할지 알수 없는 거지. 일을 진행하다보면 하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야. 그러나 시작부터 꾸준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해오면장애를 만났을 때 최소한이 피해로 그것을 구복해 나갈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야.

42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43

사례를 하나 들자면, 해외사업단장 시절에 미 안마, 캄보디아 같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던 나라들을 설득하며 증권 시장을 열게 하는 업무를 맡았었어.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 아주 치열했지. 중국 같은 경우는 전액무료의 조건을 걸었어. 우리나라는 국가들에게 45%의 지분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지. 회의가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가기 직전, 캄보디아 차관에게서 윗선에서는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거야. 다음날 미팅에

서 차관에게 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지에 대해서 삼십분 간 얘기 한 뒤 당당하게 골프를 치러 가버렸어. 이후 장관을 만나서 왜 우리여야만 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니 장관이 조언을 구하더라고. 그리곤 참보디아와 우리나라가 MOA를 체결하게 되었어. 이렇듯 일이 잘 진행되다가도 예기치 못한장애를 만나는 일이 수두룩해. 그러나 그 순간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고 용기있게 대처하면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_____스스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경쟁력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인지

항상 국제파트에 근무해서 외국어는 자연스레 능통하고, 해외에서 MBA를 수료했어. 현재 연 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야. 항상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이런 스펙 부분 보다는 나의 가장 큰 경 쟁력은 마음가짐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일 을 시작할 때, '잘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안 될 지도 모 른다.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 지차이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또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방 면으로 생각하면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 사례를 들면, 비서실에 근무할 적에 미국 대사 관에 잘 알던 사람이 있었어. 그러나 유학을 다 녀온 뒤 알아보니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변경되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누군가 나에게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사관 도 움이 있으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부탁을 해왔어. 나는 당시 미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일단 대사관에 전화 를 걸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 였고 그 쪽에서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도움을 주었어. 만약 내가 처음에 미국 대사관에 아무 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결과는 이끌어 내 지 못했을 거야. 이 사례는 사소한 일화지만 큰 일도 마찬가지야. 초반에 항상 긍정적으로 사 고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긍정적으로 사고하 면 일이 잘 풀리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자신 감이 생기게 되지. 이것은 어떤 자격증 같은 것 들보다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어.

03 48

실제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후배들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 면 무엇인지

위에 말했듯이 마음가짐이 중요해. 거기에 덧붙여서, 'Yes, but'의 태도가 필요하지. 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해 왔을 때 첫마디는 무조건 Yes야. 나에게 부탁을 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지. 일단 Yes라고 대답한 뒤, but하며 조건을 붙여.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단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첫마디가 No부터 시작하지. Yes와 No의 대답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학교 후배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부산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수도권 중심사회 구조에서 모든 장점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학생일 때부터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미래란 거창한 것이 아니야. 당장 한 시간 뒤,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등 그 때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했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나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있어. 이유는 비서실에 근무할 적 모시던 분의 성격이 매우 급했다. 그 분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이 이시간쯤 되면 뭘 찾으실 것이다, 뭐가 필요하실 것이다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 놓아야 했어. 이런 것이 생활화 되다 보니 나에게도 습관이 된거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는, 내년에는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지 생각하여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_____선후배와 동문들 간의 교류가 많이 부 족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옛날에 비해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많이 부족한 것은, 무엇보다 세태가 바뀌고 현재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쪽으로 변했어. 가족 내 에서도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는데, 선후배간은 말할 것도 없는거지. 그러나 선후배 간의 교류 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드러나. 사 회에 처음 나오면 망망대해와 같아. 그런 망망 대해에 나왔을 때 옆에서 누군가 끌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여기서 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선배들이야. 그러므로 후배들이 선배에게 좀 더, 연락을 자주 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해. 선배가 후배를 매일 기 다렸다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 수 없지않 나 허허. 후배들의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 다고 생각해.

______특별히 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 해 주신다면

앞서 말했다시피, 학교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기 개발 노력이 더욱 중 요해.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부산대 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건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아. 학생들의 노력여하에 따 라 얼마든지 커버 될 수 있기 때문이지. 학생들 이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고, 앞서 나 가려는 태도가 필요하해. 만약 대학 자체가 인 생을 결정한다면, 학생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 겠지만 부산대는 정말 좋은 학교이므로, 여기 서 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든지 성 공할 수 있어. 부산대의 최고의 장점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야. 선배들이 이미 사회 요소요 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이러한 장점 은 타 대학에 비해 엄청난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 있어.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45

NEWSLETTER VOL.3



Review:

Although my exchange lif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was less than 4 months, I really found that it was a rewarding experience. In my country, I have never stayed away from home, and in a dormitory. From my exchange life in PNU, I have learnt how to be independent and manage my student life well. Beyond that, I also had to manage housekeeping with my room mate. Having never lived with someone in the same room for the whole of my life, it was really a new experience for me. I had to learn how to get along with someone 24 hours a day, but in the end this allowed me to forge the strongest friendship in my life so far.

Besides my roommate in which I have gotten really close to, I have found many nice friends here in PNU too. Friends of my friends, friends from my class and even other exchange students who I randomly meet around the dormitory. These friends, regardless of nationalities, have been really welcoming and friendly to an exchange student like me. I was really grateful for these friendships and for my buddy who hosted me well. Because from their hosting, I have learnt so much, I have experienced the drinking culture and found my favorite Korean wine · Makgeolli from this exchange!

From all these experiences, We found these close friends. But all good things come to an end. When it was time to leave, We were definitely reluctant to leave, because we realized it was time to return to our home country and to return to reality. No matter what, the beautiful memories of this exchange would always remain part of my memory! I am definitely thankful for all the warmth and welcome I have received from this exchange!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09학번 어소윤 입니다. 2012학년도 1학기 저는 부산대학교로 온 교환학생들이 한국 의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버디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버디였던 에스더가 쓴 글 입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스더는 2012학년 1학기에 한 학기 동안 부산대학으로 교 환학생을 오게 되었고 우리는 국적을 뛰어넘어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와 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의 영어로 된 에스 더의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약간은 의역을 하거나 제가 덧붙인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 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리뷰:

비록 부산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4개월이 채 안 되었지만, 저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 되 었습니다. 모국인 싱가포르에서는 집을 떠나거나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전체 크기가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작아 현지 학생들은 대부분이 집에서 통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저는 '독립'에 대해, 그리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 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룸메이트와 함께 방을 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의 방에서 함께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 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한 사람과 어울려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내 인 생에서 가장 단단한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룸메이트 이외에도, 부산대학교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버디의 친구들, 같은 수 업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기숙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다른 교환학생들까지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와 같은 교환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우호적이 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정에 굉장히 감사하고, 나를 환영해준 버디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들의 환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국의 여러 술자리 문화를 경험했고,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한국 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 국식 와인인 막걸리입니다. 이런 색다른 경험들로부터 나와 잘 맞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은 일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한국을 떠나 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내 집과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한국의 친구 들과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환학생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나 나의 추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환 학생 생활을 하면서 받아왔던 따뜻함과 환영 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삼성물산 **취업기**



장동원

오늘보다 어제가 청춘이고, 그래서 난 오늘보다 어제 열정적이었고 어제보다 그저께 대범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신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훈계는 그만 하는 걸로~ 요즘 신사의 품격 열풍은 가히 폭발적이다. 열풍의 주인공인 꽃중년 4인방의 인기비결은 명확한 색깔이다. 각자가 자신의 색깔을 충분히 보여준다. 마치 세상에 네 종류의 남자만 있는 것처럼. 색깔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선 자신만의 색깔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할 만큼 내 색깔이 오색찬란하진 않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내 색깔을 가지기 위해 미쳤었다.

기차리온나! '망설임 깨부수기' - 성격개조

망설임을 깨부수고자 항상 무대체질로 몸을 만들었다. 그래서 각종 축제 MC를 맡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익숙하게 했었다. 그리고 나는 클럽에 가면 100번 아리따운 여성의 연락처를 묻겠다는 마인드를 가진다. 안되더라도 노력하는 나니까! 무수히 퇴짜를 맞아도 괜찮다. 하지만 결국 당당히 101번째 도전으로 2차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 같은 노력형이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째 성공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기는 생각지도 못한 큰 것들을 가져다준다. 태어날 때부터 MC를 보기 위해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100번의 퇴짜에도 굴하지 않는 깡을 가진 사람도 없다. 결국, 나는 철저한 자기 깨부수기를 통해 나만의 당당함을 키웠다. 갑자기 클럽 얘기를 하며 자기 깨부수기를 말하는 나에게서 어떤 배움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 이번에는 모범생 상태로 돌아가 보겠다.

기수리 원수! '색다르게 그리고 끈질기게' - 자기계발

저학년일 때 도서관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는 접점일지 모르겠지만, 취업압박이 임박한 이들에게 는 아련한 과거일 뿐. 여기서 지극히 통념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다. "남들이 하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서는 잘해야 본전이다. 내 색깔이 있는 차별화된 자기계발이 필요하다. 영어는 나의 경우 2년 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참고로 R.O.T.C다)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포켓형 영어기초 회화책을 씹어 먹다시피 외웠다.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문장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 원어민 영어 대화를 20분간 하며 영어에 익숙해져 갔다. 물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나만의 방법은 '혼잣말'이다. 퇴근 후에 30분씩일과에 대해 영어로 혼잣말했다. 혼잣말의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러다 보니 지하철에서도 다양한 사람과 상황에 대해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식당에서도 음식 맛에 대해 중얼거렸다. 나중에는 술자리에서도 혼잣말로 분위기를 중얼거리고 있을 정도였으니 마치 미친놈 같았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맞다. 나는 미쳤었다.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앞으로 내가 설 무대의 파이가 커질 것



임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나는 4년간 블로그에 신문, 경제잡지 4~5부를 읽고 주 단위로 의견을 정리하며 사고의 깊이를 더했다. 그리고 평균 월 1~2권 독서와 함께 논평를 정리하면서 블로그는 나의 지식창고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방면에서 내 의견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뚜렷한 색깔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취업의 난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계발은 뭐니뭐니해도 끈질긴 놈이 성공한다는 것! 습관화해라. 나는 취업이확정된 지금도 여전히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물론 블로그에 콘텐츠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지수 1 원 / '나만의 스토리' - 각종 활동(경험)

모두가 "경험, 경험~" 하며 봉사활동부터 인턴까지 다양한 것을 한다. 그러나 경험에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느꼈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도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누적시키는 것이가장 중요하다. 물론 나는 인턴도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만의 조그마한 사업을 해봤다. 대학 마지막 학기, 도전에 갈증이 난 나는 아파트 단지에 유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육을 기획했다. 홍보부터 운영까지 하면서 나름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각종 시행착오를 겪었다. 책에 없는 것이 현장에 가니까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낀 소중한 계기였다. 하지만 이런 도전 역시 과거대학 시절부터 학생회, 학군단, 사회활동 등으로 다진 경험에서 나온 결과였다. 그렇다! 경험은 이렇게 쌓여가며 자신도 모르게 기초역량으로 자리 잡혀간다. 결론은 색다른 경험을 찾으라는 것! 누구나하는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말고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도전을 해야 한다. 특별하게 생각할 것 없다. 아니면 지금 속한 단체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그려보는 것도 좋다. 나는 어떤 곳에 속하든 내 이름석 자는 무조건 남긴다는 정신을 가지고 임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하든 무에서유를 창조하든 그것은 모두 우리 자신의 색깔을 만드는 과정이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학업을 연장하든 쉬운 일은 없을 것 같다. 결국, 주저리주저리 떠든 핵심은 나만 의 색깔 찾기다. 지금까지 나의 20대는 남들과 다르고자 치열했다. 미쳐라!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청년의 특권이라니까. 모두 자신의 색깔로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화려하게 그려가길 바라며~!

50

학생칼럼

국가 연계 봉사 프로그램 캠프힐 해외봉사 체험기



이정민

늦은 나이에 입학해서 지금 나이가 26세인 저는 이미 취업을 하거나 취업전선에 뛰어든 친구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서 늘 취업난에 대해 듣게 됩니다. 취업을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전쟁', 그중에서도 봉사활동은 누구나 관심 있어 하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여름부터 1년간 영국으로 조금 특별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봉사활동 프로그램, '캠프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캠프힐은 아마 많은 분이 처음 들어보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캠프힐은 쉽게 말해 독일, 프 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국외봉사활동 기관으로 장애우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캠프힐 지원 관련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 상세히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캠프힐의 일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애우 자원봉사는 각 하우스를 총괄하는 '하우스 페어런츠'와 '서포트 워커'로 구성되어있고, 제가 경험했던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 하우스를 예로 들면 5개의 하우스에 각기 다른 하우스 페어런츠 2명과 4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명의 자원봉사자가 1명 혹은 2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책임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생들을 깨우는 것으로 캠프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봉사자들은 학생들이 씻는 것을 도와주고 옷도 챙겨줍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동안 봉사자들은 씻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영국의 아침 식사는 한국처럼 분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빵을 자르고 잼이나우유 등을 간단히 챙겨주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엔 각자 맡은 청소구역을 청소하고 오전 활동인 컬리지를 준비합니다. 아침활동 컬리지에는 연극, 승마,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학생들이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저도 승마나 연극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도와주는 동시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은 주로 하우스마다 담당요리사가 찾아와 요리하는데 장 애우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으로 모든 음식을 만듭니다.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학생들의 건 강에는 좋지만 그만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침에 주는 빵이 싫었고, 유기농으로 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생활하는 내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에는 학생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워크숍은 크게 우드 워크(나무공예), 위버리(목도리나 카펫을 만드는 곳), 푸드프로세싱(잼이나 쥬스를만드는곳), 가드닝(농장일)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몸을 움직여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장애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앉아서 수업을 듣는 컬리지 보다는 활동적인 워크숍을 좋아합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저녁활동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에게 책 을 읽어주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며 함께 노래하기도 합니다. 저녁활동은 봉사자들이 학생들과 더 가 까이서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녁활동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씻는 것 을 도와줍니다. 함께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칫솔질에 소홀한 학생이라면 칫솔질만 도와주게 되는데, 학생들의 장애 수준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정도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 니다. 이때는 봉사자들이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던,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 니다. 이것이 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는 하우스 페어런츠와도 친구처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억지스러운 주종관계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학생들과 문화생활을 하고 정기적으로 휴가가 주어지면 유럽 주위를 돌아다니며 여행 을 합니다. 저는 캠프힐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런던,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 라를 여행하였습니다. 따로 여행 경비를 주지는 않지만, 유럽문화를 경험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 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봉사자들은 캠프힐에서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습니 다.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액수이며, 봉사자들 대부분이 주말 여행경비를 캠프힐에서 주는 활동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캠프힐에서 장애우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화를 배우게 되고, 1년 과정이 끝나면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참고로 캠프힐을 신청해서 서류에 합격하시면 화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캠프힐 자원봉사는 장애우들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회화를 중요시합니다. 영어 말하기가 부족하시다면 미리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캠프힐 봉사활동에는 영어 실력 쌓기, 유럽 여행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놀라울 만큼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장애우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웃고 울던 1년의 세월은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캠프힐은, 제게 너무나도 값진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1년 동안의 경험을 몇 장으로 소개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캠프힐에 관련된 책도 시중에 나와 있고,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절차들은 인터넷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캠프힐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51 NEWSLETTER VOL.3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MBA 원우회장 두산인프라코어 부산법인 대표이사

28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한 대기업의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한 기업의 CEO 이르기까지 조직 및 사 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참여하고 공유하자!

우리가 주인인 행사에 주인으로 참여하십시오.

명문과 위상의 요건을 갖춘 현대의 지성인은 '혼자'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성인은 '우리' 로 존재해야 합니다. 나만의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나보다 강한 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너지의 출발은 참여와 공유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힘으로 홀로 살아가는 거미는 독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참여와 공유로 함께하는 꿀벌은 꿀을 만 들어 냅니다. 한 음으로 하모니를 만들지 못하고 한 빛으로 스펙트럼을 만들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인사고가가 80%비중의 업적보다 20%비중의 시너지적 태도평가에서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내일보다 오늘, 우리보다 나를, 전체보다 내가 속한 부분만을 우선시하는 직원 을 중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과 일변도의, 특정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운영 되는 것 같지만 전 사적으론 매우 미미하고 한계에 봉착합니다. 팀 보다 나은 개인은 없습니다. 이를 깨닫고 학창시절 부터 관념적 이론을 벗어나 현실경영에 접목될 수 있는, 성적뿐만이 아닌 훈련하고 단련하여야 할 일 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CEO는 자기와 닮은 사람을 핵심인재로 발탁합니다. 닮음이란 전사적 가치를 두는 것에 진심으로 동 참하는 즉, 주인으로서의 참여와 공유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CEO라면, 또 행사의 주인이라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 무엇을 피 하고 또 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핵심 인재로 택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끼고 배려하자!

학창시절에 만난 지인은 특히 오래갑니다. 살아온 세상보다 살아야할 더 많은 세상을 같이 해야 할 우 리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남들이 보는 나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위를 후한 점수로 채점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이 항시 옳은 것이 아니듯이 내 생각의 다름이 틀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고개 들어 하늘도 봅시다.

기업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땐 기술과 배경, 능력과 교육을 잣대로 삼지만 해고할 땐 사람다움이 잣대가 됩니다. 달리다가 되돌아보는 법을 배웁시다.

도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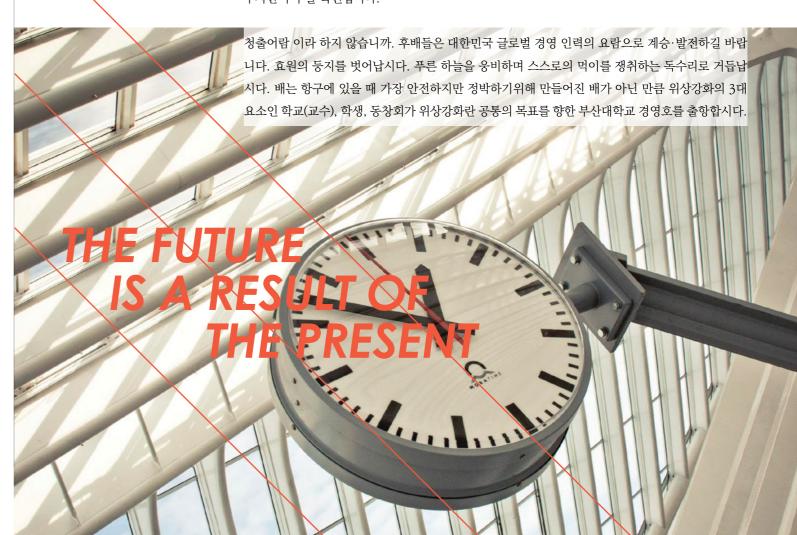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의 미련보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큽니다. 도전과 모험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은 없지만 성공할 확률도 없습니다. 도전과 모험은 리스크를 내포 하고 있지만 기적이 일어날 확률을 제로로 고착시키지는 않습니다. 훗날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은 일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건 남들도 어렵습니다.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는 진나라가 공경에 빠 졌을 때 춘추를 썼고, 사마천도 궁형 후 사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손자 또한 다리를 잘리는 형벌 후에 손자병법을 완성했습니다. 평탄한 삶에서 걸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도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에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은 신이 내린 인생최대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상의 이치입니다. 승마장의 장애물이 장애가 아니듯 값진 인생에 역경은 역경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 입니다. 꿈은 역경을 동반합니다. 가슴속 깊이 간절히 원함이 꿈이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위상강화의 주체가 되자!

전통과 위상이 하루아침에 정립되지 않겠지만 현재는 과거의 필연적인 산물인 동시에 미래의 원인 입니다. 내일의 힘 있고 발전된 모교의 모습을 원한다면, 부산대학교 출신임이 무한히 영광스럽고 자 랑스럽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어려워 못하는 걸 우리가 한 번 해봅시다.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남들이 닦아놓은 길만 고집한다면 평생 선구자는 못됩니다. 강화된 위상은 선 구자만이 누릴 특권입니다.



운(運)이 **좋은 사람이 되자**



이헌동 AMP 60기 양산초등학교 교장

AMP과정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동기들이 대부분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배우고 생활한 것이 학교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고 가르침을 준부산대 경영대학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행복은 주관적이지만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운(運)은 정해진 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하였다는 의미와 함께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살 수 있는 자세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말과 행동이 되풀이 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며, 습관이 굳어진 것을 성격이라고 하며, 이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좋은 운(運)을 만드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감사함의 본질은 사려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는 것으로 자존감을 높여 주며, 감사를 주고 받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나 스스로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어 상대에 게 준 긍정적인 효과가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고 합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실패를 하여도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믿고 그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서 성취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 잘될 것, 믿음, 만족, 칭찬, 자신감, 기쁨, 희망, 즐거움, 사랑, 용서, 착함, 밝음, 감사, 성공'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하여 관계를 긍정적이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요즘 교육에서는 만남과 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와 학생, 교육자와 학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교육효과가 높고 교육자와 학생이 행복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만족도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을 때 행복지수가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는 행복



할 수 있는 좋은 운(運)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인식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百行不如一覺'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낳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좋으며, 백번 행하는 것보다 제대로 한 번 깨달음을 갖는 것, 즉 더 나은 새로운 세상에 눈 뜨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는 의미입니다.

효원경영의 책과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이 운(運)이 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

행사 참가기

현대중공업 **견학 보고서**



현장 견학에 관련된 공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경영이 실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에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견학 장소는 울산 현대 중공업이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많이 모르는 나에게도세계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하나로기억되는 현대 중공업을 직접 견학한다는 생각에 많은 기대가 되었다.

울산 현대 중공업을 견학하는 6월 8일, 참가 학생들이 상학 관에 모여서 부산대학교 전용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출발했다. 현대 중공업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간 곳은 아산기념전시실이었다. 아산기념전시실은 현대 그룹의 설립자인 아산 정주영 회장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은 곳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현대중공업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기좋게 정리해 놓고 있었다. 청년 시절 쌀장사할 때의 모습, 기업인으로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모습, 각종 교육활동,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주영 회장의 기업인으로서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엿본 기분이 들었다. 다함께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썼던 아산 정주영 회장의 열정을 전시된 상패와 사진,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던좋은 시간이었다.



박귀해

아산기념전시실을 둘러본 후 안내자분과 함께 버스를 타고 현대중공업 안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견학하고 있는 그 순 간에도 현대중공업은 쉴 틈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견학을 도와주셨던 안내자분의 말씀으로는 현대 중공업은 조선사업뿐만 아니라 엔진 기계사업, 해양사업, 플랜트사 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 건설장비사업 등 많은 분야의 사 업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 양한 분야에서 세계기록을 경신한 많은 기술과 상품을 보유 하고 있는 현대 중공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에 자부심 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현대 중공업 내부를 견학하 면서 현재 외국기업에서 주문을 받아 제작 중인 유조선과 컨 테이너선을 볼 수 있었다. TV나 신문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선박을 실제 크기로 보니 위압감이 상당했다. 엄청난 크기 의 선박을 현대 중공업의 기술자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 니 다시 한 번 현대 중공업의 기술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막연하게 느껴지던 현대 중공업의 기술력 이 한층 생생하게 느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 중 공업과 같은 기업에서 나와 같은 경영학도 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안전 문제 때문에 버스 밖에서는 선박의 제조 현장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견학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짧아 현대중공업의 더욱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다음 번 견학에서는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욱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짧았던 시간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의 경영철학과 현대 중공업의 실적,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개발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현장 경험을 간접 적으로나마 쌓을 이러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농촌 **학생 연대활동**



김해누리

교직에 계시지만 부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어머니께 6월 26일부터 7박 8일 동안 농활(농촌연대활동)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자 "6월 말은 농한기라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농활 동안 몸 편하게 지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경영대학에서 가게 된 사천시의 문화마을은 대규모로 키위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이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농활을 했던 키위 과수원 '일진 농원'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보통의 논밭과 달리 과수원은 일 년 내내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키위밭, 복숭아밭, 포도밭 등에서 본격적인 농활을 시작했다.





비가 온 하루를 제외하고 7일 동안 이어진 농활은 우리에게 농사를 짓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힘 든 일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7명이 비료 6톤을 나 른 것이다. 20kg 비료를 모든 키위나무와 복숭아나무 밑에 놓는 일이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뜨거운 의자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점심으로 뜨거운 컵라면을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내심이 많은 편이 아닌 내가 그 힘든 일들을 버 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포기해 버리면 몇 배로 고생할 친구들과 아저씨, 아주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손수레 가 고랑에 빠질 때마다 손잡이가 허벅지에 부딪혀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아팠고 100kg 무게의 비료를 싣고 한 번 나갔 다가 오면 숨이 차서 말할 힘도 없었지만, 마침내 일을 끝내 자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한나절이 지나 기 전에 끝낸 이 일을 아저씨, 아주머니는 며칠을 꼬박 힘써 야 끝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우리가 오 늘 하루 고생한 덕분에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허리 펴고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농활 동안에는 거의 매일같이 막걸리를 먹었는데 일하는 중에 또는 일을 마친 후에 마셔서 그런지 평소에 먹었던 것보다 더욱 맛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주머니께서 직접 기른 신선한 고추와 파로 만들어주신 파전과 함께 먹은 막걸리가 가장 맛있었다. 또 가까이에 있는 남양초등학교에 가서 놀았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밤에 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어두운 학교에 다녀오기도 했고 마니또에게 줄 꽃을 구하러 학교로 산책하러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다 같이 학교에 모여서 발야구를 하기도 했다. 8일 동안 힘들고 재밌는 일을 함께하면서 농활을 온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다. 키위 와인을 제조하는 곳에 가서 와인 시음을 하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천시의 폐터널을 이용하여 와인터널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셨다. 농촌이라고 해서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몇 년 안에 이 와인 터널이 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복숭아나무에 비료를 주었을 때 아주머니는 우리가 비료를 주어 기른 복숭아니까 꼭 먹으러 오라고 하셨다. 복숭아가 열리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린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웃어넘 겼지만, 아주머니의 말이 참 정다워서 좋았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꼭 키위 주문하라고 할게요!" 하자 밝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수확 철에 일손을 돕지 못해 안타깝다. 올가을에는 우리가 직접 비료를 주어 기른 키위를 꼭 먹어야겠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59 NEWSLETTER VOL.3

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2 PNU BIZ GLOBAL CHALLENGE



윤성영

1년 반 동안의 휴학 후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왔다. 많은 설 렘과 기대, 그리고 가슴 깊이 새긴 다짐들을 안고 시작한 새학기지만 늘 그렇듯 각종 과제와 시험에 쫓기며 초기에 했던 다짐들은 까마득히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경영대학술동아리인 CAPLUS'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선배가 경영대에서 주최하는 2012 PNU BIZ GLOBAL CHALLENGE란 대회에 같이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학과 사무실 앞에붙여진 포스터를 보니 주어진 주제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주제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지루해진 학교생활에 새로운 동기 부여가 필요했기에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주제를 선정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의 관심분야와 경 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했 다. 우리 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제는 '중소기업과 대기 업의 동반성장'이었다. 나는 예전에 중소기업 마케팅 대회 에 입상한 적이 있었고 팀원 선배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관 련하여 항상 관심을 보여 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

도의 성과를 2012 PNU I 나의 학교생후 함께 고생해를 시고 큰 상께 수님들, 그리 사하단 말을 CHALLENG 치는 학생들에 회가 모든 참 바란다.

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도 주제를 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해외의 우수한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례 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에 한국 형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큰 틀을 토대로 정부, 기 업 쪽에 연락을 취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열심히 수집하며 준비하였다.

발표 당일, 우리 팀의 순서는 거의 마지막이었다. 앞의 팀들이 주제도 신선하고 발표도 잘해 목표했던 1등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들께서 주제가 현재 시기와 잘 맞고 참신하다는 칭찬을 해주셨고 뒤이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1등 상까지 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강시키며 더욱 생산적인 인터뷰를 위해 탐방을 가는 미국 쪽과 사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서울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인터뷰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일정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긴장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어느 정 도의 성과를 얻어올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확실한 건 이번 2012 PNU BIZ GLOBAL CHALLENGE이 느슨해져 있던 나의 학교생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주었다는 것이다. 함께 고생해준 김종욱 팀원, 부족한 보고서지만 좋게 봐주 시고 큰 상까지 주신 최종열 경영대학장님과 심사위원 교 수님들, 그리고 멋진 발표를 보여주신 모든 참가팀들에 감 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열릴 PNU BIZ GLOBAL CHALLENGE 대회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활력이 넘 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해마다 규모도 커지고 이 대 회가 모든 참가 학생들의 생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

문탠로드에서의 **소통**



강민화

4월 28일 토요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어색하진 않을까?

우연히 교수님과 동문선배님, 재학생과 더불어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함께 모이는 행사가 있다는 공지를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저 없이 참석했던 동문과 유학생의 상견나들이 행사.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상과대학의 다양한 학과, 학번의 재학생들과 유학생과 함께 조를 이뤄서 동백섬에서 해운대를 거쳐 문탠로드를 지나 송정에 이르는 코스의 나들이에 참가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걷기에는 제격인 날씨였습니다.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해운대를 지나 문 탠로드로 향하고 있을 때, 무역학과의 중국인 유학생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째라는 그유학생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입맛도 많이 변해 깻잎도 잘 먹는다는 황멍이 유학생. 언어가 다른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수업에서 교수님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서 겪는 어려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한국인 친구가 없어 교

수님께 메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마 저 없을뿐더러 학교에 다니면서 학과 학생들과 다 함께 가 는 송정 MT(membership training)를 경험해보지 못해 아 쉽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서 유학생이 겪는 고충 중에 외로움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시간에 걸쳐 도착한 송정에서 동문 선배님들이 사주신 맛 있는 밥을 먹으며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같이 걷고 밥을 먹으면서 같은 버스를 탔던 중국인 유학생 5명과 교수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학생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재학생들 입장에서도 평소에 유학생들에게 대화하며 다가가서 친구 하자고 말을 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같이 이야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재학생인 저로서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수님들과 마주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교수님과 동문 선배님들과 진로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던 좋은시간이었습니다. 동문회에서 주최하시는 이 모임이 꾸준히지속하여 재학생과 유학생이 서로 도와가며 친하게 지낼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발전기금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조적 역량을 갖춘 경영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대학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교육연구 인프라 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09년 더 타임스 QS 평가에서 국내 종합대 6위 등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의 오늘이 있기까지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들과 각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경영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 최종열

발전기금 사용목적

- + 장학기금 _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 (0.5%)이내의 최우수 인재
-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 (2%)이내의 우수 인재
- 국제교류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 + CPA수험생지원 _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 CPA 2차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면제 함
- CPA 1차 합격자에게 포상금 지급
-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 + 학술연구기금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 세계적 석학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 국제교류기금 _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 외국인교수 확보사업: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 +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 _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 경영학교육 기반 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 +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 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 대학운영개선기금: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 첨단강의시설: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 확보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 발전기금-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자가 지정하시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출연자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출연하신 분에게 기금 운영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출연자가 매월 1만원씩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불입하는 방법입니다.
- + 경영 등록금 한번더내기 기금 등록금을 한번 내어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 출연자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수혜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출연자가 경영대학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입니다. 출연자가 기금명칭을 정하고 해당기금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목적성 축적기금은 출연자가 지정한 목적의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 +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 +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1대]
- 평생교육원 수강료 30% 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 할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 [연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3000만원 이상)

- + 금정클럽(1억원 이상) 추가 예우
- 감사패 증정(총장)
- + 문창클럽(5억원 이상) 추가 예우
-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4중 택1]
- + 효원클럽(50억원 이상) 추가 예우
-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과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 ~ 2010년 8월

금정클럽 (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웅비 클럽(1,000만원 이상)

노대섭	48,000	김종태(대표)	20,000	김승영(㈜금영 대표)	10,000
김일곤(경제학과 교수)	30,000	김태흥(㈜정관 대표)	20,000	조관승(회계사)	10,000
노선호(풍경정화㈜ 대표)	30,000	0 최신형		최종열(경영대학 교수)	10,000
권청길(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오명열	17,500	손태영(㈜케이씨 대표)	10,000
이근철(㈜삼정 대표)	30,000	강판수(㈜청강 대표)	15,000	정판덕(새부산관광 대표)	10,000
우한호(㈜피앤에이 대표)	30,000	구자용	10,000	이장생(㈜아남약품 대표)	10,000
이상환(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이상일	10,000	박태복(㈜티비카본 대표)	10,000
김영주(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이원태(㈜경일통상 대표)	10,000		
구자봉(㈜미래파크 대표)	20,000	최춘식(AMP동창회장)	10,000		

미리내 클럽(100만원 이상)

- 김정호(㈜경국 대표)	5,000	이해주(경제학 명예교수)	2,000	임정덕(경제학부 교수)	1,000
김일우(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최정환(우성식품 대표)	2,000	송창년(대광닛불㈜ 대표)	1,000
이정상(보생 대표)	3,000	박철병(성도회계 지사장)	2,000	장지환(성도회계 지사장)	1,000
박수만(용진건설㈜ 대표)	2,500	방수한(AMP52 대표)	2,000	곽선화(경영대학 교수)	2,500
황보석기(AMP50 대표)	2,500	김영식(AMP 골프회장)	1,000	김태혁(경영대학 교수)	1,386
박용득(용신건설 대표)	2,500	안태원(㈜한아 대표)	1,000	조영복(경영대학 교수)	1,800
류열(일신산업 대표)	2,000	김상철(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지성권(경영대학 교수)	1,500

등록금 한번 더내기

교원

최종열	1,500	문병근	1,500	신종국	1,500	강원진	2,000
황규선	5,000	하충룡	1,500	방호열	1,500		
곽선화	1,500	이균봉	1,500	김진욱	1,500		
김창수	1,500	김호범	1,500	이갑수	1,500		

동문

김형우	1,500	권혁태	2,000	정계섭	1,500
조헌제	1,500	김은홍	2,000	김형진	1,500
정윤재	1,500	옥치장	2,000		
김지완	4,500	박기순	1,500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57기 약 400,000

337	27,000	417	35,000	467	23,000	51기	29,500	567	17,000
367	23,500	427	26,500	477	34,000	527	21,500	577	26,000
377	29,500	437	35,000	487	29,500	537	29,000	경맥 75동기	10,000
397	30,500	447	23,000	497	29,500	547	17,500	전문경영자 2,3기	10,000
4071	27 500	4571	32 500	5071	24 500	5571	26 500	MBA 3771	2 500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마라톤 후원금	33,269
---------	--------

구자봉	10,000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0여명
이병걸	1,000	AMP 45기~54기 박종영 등 80여명
(주)신화사	1.000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 (10만원, 2008년 6월부터)

경영대학 (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이후: 2010년 9월 ~ (단위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내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따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지역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1인1계좌 갖기 운동·CPA1인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금정클럽 (1억원 이상)

정준수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 (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웅비 클럽 (1,000만원 이상)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10,000	안승(AMP 28대 총동창회장)	10,000	주영찬(AMP 60기)	10,000
김유일 (경영대학 교수)	10,000	최종열(경영대학 교수)	10,000		

미리내 클럽 (100만원 이상)

전경준(MBA44)

문성욱(용원개발 대표)	5,000	황건호(전국투자협의회장)	1,000	진병수(AMP55)	1,000
김경희(AMP59)	5,000	이상필(AMP59)	1,000	김용오(AMP55)	1,000
송미란(MBA41)	5,000	김재오(AMP59)	1,000	김영식(MBA42)	1,000
박철병(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배근호(AMP59)	1,000	김동률(MBA42)	1,000
장지환(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최무림(MBA41)	1,000	문희준(MBA42)	1,000
김종민(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정 동순 (MBA41)	1,000	박미현(MBA42)	1,000
김정교(경영대학 교수)	3,000	문병혁(MBA41)	1,000	양길석(MBA42)	1,000
이상래(AMP59)	3,000	이우영(경영사 상무이사)	1,000	윤성차(MBA42)	1,000
민병권(AMP59)	3,000	손영표(mindsystem 대표)	1,000	조비송(MBA42)	1,000
정희자(MBA41)	2,000	최상문(경영대학 교수)	1,000	채창호(MBA42)	1,000
손 인(MBA동문회장)	2,000	김대철(AMP55)	1,000	최윤영(MBA42)	1,000
조규성(MBA42)	2,000	조강래(AMP55)	1,000		
임동찬(AMP61기)	1,686	이우식(AMP55)	1,000		
소액기부자 (100만원 이하)					
- 김종세(MBA42)	500	김정열(MBA 43)	400	반태옥(MBA 43)	200

300

이동은(MBA 43)

곽지영(MBA 43)

발전기금을 약정하시거나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단체 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귀파이어	4E66/146(AWII) 302 13,000										
강구철	권태구	김성자	김용규	김 종 률	김주영	문성희	박상환	이상기	이인희	이호형	최영만
강운형	김광식	김애숙	김인규	김종성	김혜정	박동천	윤창영	이은희	이창근	임춘우	허영숙
최고경영	최고경영자과정(AMP) 59기 25,000										
김경희1	김재오	김 진	박상현	배근호	성효선	이병원	이지연	정 희	최영근	황보문자	
김경희2	김재환	김형태	박용만	백창흠	송진홍	이상래	장무애	조광제	최재균		
김동숙	김종남	류종국	박은희	서근석	이강은	이상필	정애기	차동락	허 현		
김명숙	김지혜	민병권	박중규	서중영	이미영	이준수	정운교	최병일	홍순옥		
최고경영	자과정(AMI	P) 607 30,	,000								
강신욱	김승기	김용주	김학열	문삼출	송운섭	이명열	이헌동	전홍길	최숙현		
김민서	김승주	김종배	노성철	민환기	오정구	이영희	임대욱	조일래	최정동		
김민재	김양구	김종현	류정형	박영이	오종환	이제두	임명희	차민근	한영호		
김성근	김영훈	김태명	류환욱	송국근	이경렬	이지영	전기도	최병오	홍대근		
최고경영	자과정(AMI	P) 617 46,	,000								
강수범	김기홍	김이권	박동수	서강섭	안병완	이기삼	이인한	정순영	정정희	최기주	현명임
강순재	김동룡	문동춘	박봉관	성기호	오세원	이성우	이일광	정오영	정종진	최덕자	황병홍
강혜숙	김성기	문진춘	박춘일	신원철	원명희	이용수	임 동 찬	정장식	조성제	허병호	
권정욱	김오기	문현재	박필선	안만현	윤춘식	이우영	장재활	정재화	지해용	허판오	

경영 1인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계좌수)

고광수(5) 김	김명종(1)	김진욱(1)	이찬호(3)	최상문(3)	동 문	김홍근(1)	김상철(2)	박인규(2)		
	고광수(5)	김유일(10)	김창호(1)	이균봉(1)	최수형(1)		손 인(10)	전상우(5)	박기원(1)	
	곽춘종(1)	김정교(1)	서문식(3)	이장우(3)	최종서(3)		김일우(3)	전광택(5)	김강수(1)	
	김기석(1)	김종기(1)	엄철준(3)	장활식(1)	최종열(10)		김형석(2)	김두성(5)	부산상대효원회(10)	
	김동일(1)	김진우(3)	옥기율(3)	조영복(3)	홍태호(3)		한미영(2)	김승태(5)		

CPA 1인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계좌수)

삼일 회계법인	이병찬(10)	허재혁(3)	박진호(1)	허태원(1)	김정동(1)	안진 회계법인	김휘학(5)	남일	김동휘(3)
	정민수(5)	최정미(1)	성유득(1)	진은경(1)	이동계(1)		박일환(3)	회계법인	장호일(3)
	조정환(3)	김병선(1)	이상후(1)	강현태(1)	이웅기(1)		공경태(1)		조용환(3)
	성낙필(3)	홍영표(1)	이주식(1)	손정화(1)	강현태(1)				
	공병진(3)	강병욱(1)	이지희(1)	박상욱(1)					
	구태우(3)	권한수(1)	정원호(1)	이광희(1)		성도 회계법인	박근서(10)	동원	나용주(5)
	오상표(3)	김도균(1)	조아라(1)	김민희(1)			예상우(5)	회계법인	강명근(2)
	정동수(3)	문병현(1)	천정봉(1)	김영수(1)					

현물 기부

임동찬(AMP61기)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4,500만원 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500



편집 **후**기

경영학과 09학번 정정민

'효원경영' 2호에 이어 3호 발간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고생한 편집위원들, 특히 편집장의 역할을 맡아 가장 수고해준 문송이 학생에게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학생칼럼을 부탁했던 장동원, 윤선영, 어소윤, 이정민 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늘격려와 지지로써 저희 편집부를 이끌어주신 최종열 학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과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고자 편집위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학기보다 더욱 발전된 경영대학의 여러 소식들을 소개하면서 경영대학人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효원경영' 소식지가 경영대학의 성장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영학과 10학번 문송이

여러 달 땀 흘려 만들었던 효원경영 3호가 완성되어 기쁩니다. 편집하면서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며, 동문 선배님을 비롯한 재학생들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지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 교수님, 재학생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지를 통해 학교 소식을 전하고 들으면서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 대한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라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경영학과 11학번 **유송이**

처음 교지편집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막연히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지 편집을 진행하면서 우리 대학의 많은 동문 선배님, 재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친밀감을 효원경영을 통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편집을 위해 경영대학의 다양한 소식을 정리하면서 우리 대학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소식지를 통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에 효원경영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에 도움을 주신 동문 선배님, 재학생, 그리고 학장님과 다른 편집위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효원경영 편집진에서는 가족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51 - 510 -1362 / amp@pusan.ac.kr







분실 부산대학교경영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659~60,1678 **팩스** 051.581.8180

